

2026년 9월 14일

Hana FX Daily Letter

국내 수급 vs 미국물가 우려

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달러/원 전망 및 동향

- **금일 전망 : 인플레이와 수급으로 양방향 막히며 1340원대 레인지 예상**
daily range 예상: 1,340~1,350원

■ **美 8월 CPI 헤드라인은** 예상에 부합했으나 근원 CPI가 전월비 0.3% 상승하며 예상치(+0.2%)를 상회. 여기에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부각됨. 이에 따라 9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확률이 87% 수준까지 상승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다만 최근 달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달러 매도와 원화 강세 기대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, 美 금리 상승 전망에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. 금일은 美 CPI 이후의 달러 강세 및 고유가 부담으로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으나, 1,350원 부근의 네고 출회와, 1,340원 부근 결제수요와 저가매수 유입 가능성에 1,340~1,350원 레인지 형성할 것으로 예상

■ **전일 동향 : 11일 달러/원 환율은 전일대비 4.60원 하락한 1,344.10원 마감**
달러원은 美 물가 및 유가 상승 우려로 상승하며 1,340원대 후반까지 상승. 장중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상단이 제한됐으나, 美 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함.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고유가와 미국 물가 우려로 한때 상승하였으나, 이후 상승 분 반납하며 1,344.10원으로 하락 마감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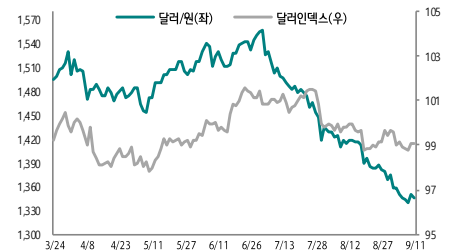
국제 통화시장 이야기

- **(달러인덱스)** 美 CPI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 압력 지속. 다만 이미 금리인상 기대가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달러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.
- **(유로-달러)** 유럽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. 美 금리 상승과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달러 선호를 강화할 수 있음.
- **(달러-엔)** 엔화는 일본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이어지고 있어 강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. 엔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원화 역시 동조화 되며 달러원 상단을 제한할 수 있음.

하나에서 전해주는 글로벌 금융시장 이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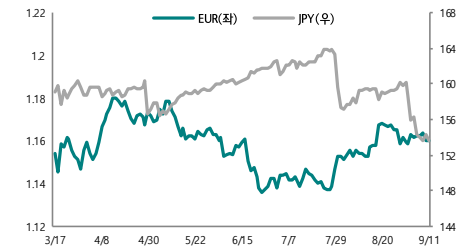
- 美 8월 CPI는 전년비 3.4%, 전월비 0.4% 상승하며 예상에 부합했으나, 근원 CPI가 전월비 0.3% 상승해 예상치를 상회. 시장에서는 물가 재상승에 대한 경계가 확대되며 9월 FOMC 금리인상 기대가 87% 수준까지 상승.
-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 및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높은 수준을 유지. 최근 WTI·브렌트·두바이유 모두 10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어 국내 수입물가와 무역수지에 부담으로 작용.
- 美 10년물 금리는 5%선에 근접하며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압력을 확대. 특히 CPI와 고유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부각되는 상황.

원화 환율 추이

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NDF
달러/원	1,347.7	1,349.9	1,336.7	1,341.0

주요 통화 추이



구분	EUR/USD	USD/JPY	USD/CNH
종가	1.1598	153.57	6.7082
전일대비	-0.0014	-0.85	-0.0063
재정환율	1,557.19	874.27	200.14

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

시간	지표	예상	이전
21:30	캐나다 9월 CPI(YoY)	3.0%	3.0%
00:15	ECB 총재 연설		

각국 주요 지표

구분	종가	전일비(%)
S&P500	7,656.98	+0.86%
나스닥	26,333.04	+0.96%
다우	52,573.29	+0.98%
유로스톡스50	6,325.13	+0.90%
니케이225	64,011.34	-1.93%
코스피	6,909.91	-1.76%
미 국채 2년	4.628%	+4.0bp
미 국채 10년	4.968%	+0.4bp

자료: Bloomberg 및 인포맥스

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,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.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,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.